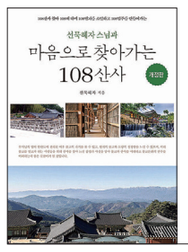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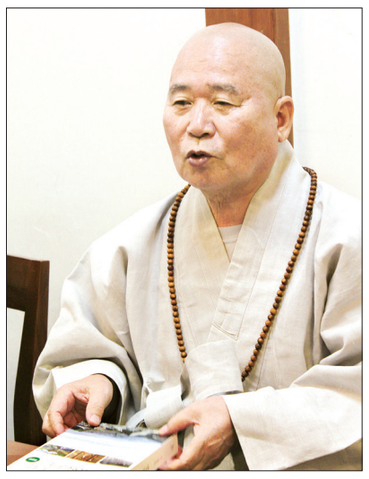
“사찰 순례 문화 확산되길”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선묵 혜자 스님 지음
시간여행
3만원

기도회 20주년 맞아 개정판 발간
7곳 추가한 108곳 순례순 구성
시·사진 교체, 지도·명단 수록도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혜자 스님이 간담회에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개정판을 소개하고 있다.



2006년 10월 통도사에서 열린 108산사순례기도회 첫 순례 모습. 사진 제공=시간여행

“이번 개정판이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불교와 사찰을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됐으면 합니다.”

108산사순례기도회(이하 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 스님이 기도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개정판을 출간했다.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는 전국 사찰 108곳의 역사와 현황, 전설과 일화를 담아 2006년 처음 발행됐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산사를 찾는 여유를 선사하며 지금까지 23쇄를 찍어낸 불교계 대표 베스트셀러다.

혜자 스님은 9월 15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선묵 혜자 스님의 나를 찾는 백팔기도문’을 계기로 순례길을 나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순례 길잡이가 될 만한 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개정판을 펴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개정판은 기도회가 거쳐 간 순례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고 사찰의 역사와 전설, 문화유산 등을 두루 망라했다. 기존 판본에서 누락된 사찰 7곳을 새롭게 추가해 혜자 스님이 직접 다녀온 108개 사찰을 엄선했다. 새롭게 교체한 사진과 함께 불보살의 가피와 스님들의 일화를 담은 시가 게재돼 눈길을 끈다.

지역별로 사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와 명단을 추가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이 책을 들고 108산사를 참배한 뒤 해당 사찰 종무소에서 낙관을 모두 받은 순례자에게는 108산사 이름이 새겨진 108염주가 선물로 주어진다.

2006년 통도사에서 시작된 기도회는 9년간 연인원 약 65만 명, 버스 7천여 대가 동원되는 등 한국불교 신행사에 전무후무한 이정표를 세웠다. 불자들이 108산사를 찾아 108불공과 108배를 올리며 이어간 대장정은 단 한 건의 중대 사고 없이 회향했다.

대사회적 보살행에도 큰 궤적을 남겼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양어머니 인연 맺기, 군 장병을 위한 초코파이 4500만 개 보시, 장학금 및 약사여래 보시금 전달 등을 통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내소사 순례 당시에는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에코컵 5000개를 제작·배포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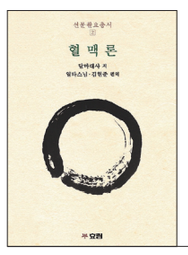
혜자 스님은 순례 기간 동안 감동적인 순간들을 회고했다. 스님은 “첫 순례지인 통도사를 시작으로 회향 날까지 순례 중 무지개가 뜬 적이 70번이 넘었다”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뒤를 이어 순례를 완주한 가족 이야기, 10년 동안 승합차에 침대를 설치해 노모를 모시고 순례를 다닌 아들의 일화 등을 전했다. 또 108산사 순례 회향 후 도안사에 파랑새가 찾아와 둥지를 튼 시기에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사도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혜자 스님은 “일본의 ‘시코쿠 88개 사찰 순례’처럼 한국에서도 이 책 한 권을 들고 아름다운 사찰을 찾아가며 신심을 다지는 순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몸이 불편해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도 이 책을 통해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를 이어가며 삶의 보람과 치유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타 스님 번역으로 읽는 ‘선문촬요’



과거칠불과 삼십삼조사
일타 스님·김현준 편역
효림출판사
8000원



혈맥론
달마 대사 지음
일타 스님·김현준 편역
효림출판사
5000원

조사 전법게·진영 등 수록
달마 저술로 보는 선 핵심

한국 선불교의 핵심 지침서인 〈선문촬요〉가 일타 스님(1929~1999)의 육성 번역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선문촬요〉는 1907년 청도 운문사와 1908년 범어사에서 경허 스님의 지시로 한문본 상·하 2책으로 처음 편찬됐다. 이후 1968년 설봉 학몽 스님이 한문 토를 붙이고, 내용을 보강해 1책으로 통합 발간했다. 하지만 한문본으로만 전해져 일반 독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에 생전 출가 50주년을 맞은 일타 스님이 직접 남긴 한문본 번역 음성 원고를 바탕으로,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윤문해 ‘선문촬요총서’ 두 권을 펴냈다.

1권 〈과거칠불과 삼십삼조사〉에는 석가모니불과 이전 부처들을 다룬 ‘과거칠불’, 인도 마하 가섭 존자부터 중국 혜능 대사까지 이어지는 ‘삼십삼조사’의 법맥이 담겼다. 여기에 설봉 스님이 꼽은 한국 선종의 중흥조 3인인 불일 보조 국사·태고 보우 선사·경허 성우 선사의 생애를 더했다. 각 조사의 전법게(傳法偈) 번역에 공을 들였으며, 정밀 보정한 진영을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2권 〈혈맥론〉은 달마 대사의 저술을 바탕으로 선의 핵심을 다룬다. ‘마음이 곧 부처’와 ‘자기 본성을 봐야 부처가 된다’는 가르침을 전하며,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염불·보시 등 어떤 행위도 모두 무의미하다고 강조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의 구분만 있던 원문을 5개 장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한글·한문 대조본으로 편집했다. ‘선문촬요총서’는 〈선문촬요〉에 수록된 〈관심론〉·〈진심직설〉 등 총 20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배희정 기자

“‘무아’와 ‘일심’은 하나로 회통”
〈無我〉 〈一心〉



무아와 일심
한자경 지음
김영사
2만2000원

몸, 감정, 생각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질 뿐 붙잡을 만한 ‘나’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자아가 없는데 죽음 이후 무엇이 다음 생으로 건너가며, 번뇌를 벗어나 해탈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인가. 무아(無我)를 말하는 초기불교와 일심(一心)을 말하는 대승불교는 서로 어긋나는 가르침일까, 아니면 하나의 진실을 가르치는 두 개의 언어일까.

불교를 접한 이들이라면 한 번쯤 품었을 이 난제에 40여 년간 마음의 근원을 탐구해 온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답을 내놨다. 신간 〈무아와 일심〉을 통해서다.

이 책은 2024년 가을 동국대에서 진행된 ‘마음과 불교’ 7회차 강의안을 바탕으로 인용 출처와 논지를 보완해 엮어낸 학술적 결실이다.

무아론·유식학·선불교 고찰 논증
동국대 강좌 바탕…동영상 강의도

한 교수는 초기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아와 대승불교의 대표 사상인 일심이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로 회통해 서로를 완성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대승 경전 등장 이래 계속된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이나 일본의 비판불교 사조에 끌려 한국불교의 뿌리인 대승불교를 저평가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승불교 사상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가르침의 본뜻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책은 ‘무아인데 왜 일심을 말하는가’, ‘자아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고 해탈하는가’ 등 핵심적 질문을 단계별로 깊이 있게 파헤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초기불교의 무아론에서 출발해 유식학의 8식설·종자설, 그리고 〈대승기신론〉의 진여일심과 선불교로 논의를 확장한다. 12지연기와 무명의 순환 구조를 분석해 고정된 자아 없이도 업의 흐름에 따라 생사가 이어지는 윤회 메커니즘을 밝히고, 현상 세계 너머 불생불멸의 마음을 자각하는 것이 곧 해탈임을 밝힌다.

나아가 유식학을 바탕으로 심층 마음을 비롯해 대상을 인식하고 세계를 빚어내는 마음의 비밀을 살피고, 〈대승기신론〉의 본각(本覺)·불각(不覺)·시각(始覺)을 통해 수행이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해 가는 과정임을 일깨운다.

저자에 따르면 초기불교가 아견(我見)과 아집(我執)을 깨뜨리기 위해 무아를 강조했다면, 대승불교는 본래 마음의 빛을 상기시키고자 일심을 부각했다. 두 가르침 모두 허망한 상(相)에 집착하지 말고 그 바탕인 성(性)을 일깨우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일체의 무상(無常)·고(苦)·무아를 깨닫는 마음 자체가 무상과 고의 영역에 갇히지 않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일체 현상이 인연 따라 생멸하는 허망한 ‘공(空)’이자 ‘가(假)’임을 입증하려면 이를 넘어선 절대적 시점이 전제돼야 하며, 그 시점이 바로 깨달은 마음인 ‘일심’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일심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마음’이며, 무아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핵심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초기 경전인 〈우다나〉의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란 구절을 들어, 연기 너머 불생불멸하는 여래심·진여심·일심이 있기에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탈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림을 지운다고 종이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듯, 수행 역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춰진 깨달음의 성품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책은 무아와 일심, 윤회, 해탈이 하나의 일관된 사상으로 회통함을 보여주며,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대승의 불이(不二) 진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아 사상과 완전히 하나로 통함을 논증해 낸다.

강의식 문체가 특징이며, 책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K-MOOC 동영상 강의도 시청할 수 있다. 배희정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조실 설당 종우
회주 대경 법달

주지 종천
부주지 성행
기획 성요
재무 성각
사회 성주
문화 성심

부주지 정문
총무 정수
교무 정광
포교 정담
호법 정신
신도회장 효 이영숙

■ 부설기관 ■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유치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포교당 석가사
불국사 문화회관
성림어린이집
불국사템플스테이

대중일동

경북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 (054)746-9912~4 Fax 746-1476